

##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 결혼

허 윤 미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배우자들은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에서 서로 닮은 경향이 있다.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동질 결혼(homogamy 또는 assortative marriage)이라고 일컫는다. 본 논문은 인간의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 결혼에 관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로, 인지능력, 성격, 사회적 태도, 가치관, 키, 체중, 체질량 (body mass index; BMI), 교육 수준에 있어서 동질 결혼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로, 동질 결혼은 결혼할 당시 배우자들간의 유사성의 결과인가, 아니면 부부들이 결혼기간 동안 공유하는 환경과 경험으로 인하여 서로 닮게된 결과인가, 셋째로, 인간은 왜 동질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동질 결혼의 연구 결과들은 동질 결혼의 정도가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 수준과 사회적 태도에서 동질 결혼의 정도는 매우 높아서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대략 .50에서 .70 사이에 있었으며, 지능의 부부상관계수는 대체로 .30에서 .40 사이에 있었다. 가치관에 있어서 부부상관계수는 대부분 .20에서 .30 사이에 있었다. 신체 특성(신장, 체중, 체질량)과 성격의 부부상관계수들은 대부분 .30이하로서 거의 0에 가까웠다. 동질 결혼에 관한 대부분의 횡단 및 종단 연구들은 부부간의 유사성이 결혼기간 동안 부부의 상호작용 및 공유하는 환경으로 인해 닮아진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왜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배우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유사성과 성장 환경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동질 결혼(social homogamy)이론과 배우자의 개별적 특성과 기호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특성적 동질 결혼(phenotypic homogamy)이론이 있다.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과 특성적 동질 결혼이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토론되었다.

주요어 : 동질결혼, 유사성, 배우자, 사회적 동질결혼, 특성적 동질결혼

인간은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Vandenberg, 1972). 이처럼 서로 유사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동질 결혼(homogamy 또는 assortative marriage)이라고 부른다. 동질 결혼은 사회 집단들에서 특성의 변량(variance)을 증가시키고, 사회 계층간의 격차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Hartle & Clark, 1989; Heath & Eaves, 1985; Thiessen & Gregg, 1980). 예를 들어, 지능이 높은 남자가 지능이 높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지능이 낮은 남자가 지능이 낮은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지능이 높은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지능발달에 유리한 유전자를 물려줄 뿐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지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여 지능이 높은 자녀로 양육시키고, 반대로 지능이 낮은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지능발달에 불리한 유전자와 환경을 물려주어 지능이 낮은 자녀로 양육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한 사회집단내에서 지속될 경우, 그 사회집단의 지능의 양극단 값이 증가하여 지능의 변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쳐 사회계층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동질 결혼은 결혼의 질과 만족도와도 상관이 있다고 한다. Russell과 Wells(1991)는 성격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가 느끼는 결혼 만족도와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성인기의 지능, 성격, 태도,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특성의 유지와 발달 과정에서 동질 결혼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Buss, 1984; Caspi, Herbner, & Ozer, 1992). 즉, 성인 행동발달에 있어서 배우자는 개인의 특성과 상호 작용하는 중요한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개인은 자신과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들을 유지시키고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Newcombe의 고전적 연구는 성인기의 사회적 태도 발달에 동질 결혼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잘 보여주고 있다. Newcombe, Koenig, Flacks와 Warick(1967)는 1930년대 미국의 Bennington 대학의 여학생들이 대학 재학시절 획득했던 정치적 자유주의 태도를 25년간 유지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본 결과, Bennington 대학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남편과 친구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 결혼에 관한 경험 연구들을 개관하고 종합하여, 동질 결혼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는 첫째로,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들에 있어서 부부들은 서로 얼마나 닮았는가, 둘째로, 동질 결혼은 결혼할 당시 배우자들이 서로 유사한 사람을 선택한 결과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혼기간 동안 공유하는 환경과 경험으로 인하여 부부들이 서로 닮게된 결과인가, 셋째로, 인간은 왜 동질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이다. 부부가 얼마나 닮았는가 하는 동질 결혼의 '정도'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단일 특성을 중심으로 한 메타분석들이 종종 보고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능하면 메타분석 결과들을 인용하여 각 영역에 있어서 동질 결혼의 정도를 수치로 요약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연구자는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를 모두 고찰하여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아직 이론들이 발전되는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기존의 대표적 이론을 소개하고 몇몇 경험연구를 소개하여 현재의 연구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 부부들은 서로 얼마나 닮았는가

본 절에서는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과 교육수

준과 같은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동질 결혼의 경험 연구들을 고찰하여 배우자들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가, 즉, 배우자간의 유사성의 정도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 중에서는 동질 결혼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 왔던 인지능력, 성격, 사회적 태도, 가치관, 키, 체중, 체질량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결과들을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동질 결혼에 대한 경험 연구들은 동질 결혼의 정도를 표시할 때, 특정 변인에 나타나는 부부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시하였다. 그러나, 부부들은 대부분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 변인에 관한 부부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부부간의 연령의 상관관계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동질 결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종종 부부간의 상관계수에서 연령의 효과를 제거하여 동질 결혼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인지 능력

지능에 관한 동질 결혼은 오래 전부터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Jensen(1978)은 지능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한 후, 부부간의 지능의 상관계수의 중앙값이 .44라고 보고하였다. Bouchard와 McGue(1981)는 서구 사회에서 발표된 부부간 지능의 상관계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여 서구 사회의 부부간의 지능의 상관계수의 중앙치가 .37이라고 결론지었다. Bouchard와 McGue(1981)는 Jensen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연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산출한 부부간의 상관계수의 중앙치가 Jensen(1978)이 산출한 것보다 낮다고 주장하였다.

다소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Johnson 등(1976)은 한국의 강원도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209

쌍의 부부에게 15개의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여 하와이에 거주하는 유럽계 미국인 부부들 555쌍과 일본계 미국인 부부들 148쌍, 그리고 미국 본토에 거주하는 123쌍의 유럽계 미국인 부부들의 인지능력의 상관관계와 비교하였다. 연령 변인을 통제한 후에 춘천지역 부부의 공간능력에서 나타난 상관계수는 .43, 언어 능력에서 상관계수는 .46, 지각 속도 및 정확성에서는 .78, 그리고 시각적 기억력에서는 .30, 지능의 일반 요인에서는 .72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시각적 기억력만을 제외하고 춘천 지역 부부들의 상관계수들은 Johnson 등(1976)의 연구에 참가한 다른 어느 민족의 부부간의 상관 계수보다 더 높았다. Johnson 등(1976)은 한국 사회에서 중매결혼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배우자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능에 있어서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현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 참가한 부부들이 대부분 1950년대 내지 1960년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뀐 오늘날에도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인지에 관하여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Watkins와 Meredith(1981)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215쌍의 신혼 부부들에게 인지능력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부부들의 연령은 18세와 30세 사이에 있었다. 연령 효과를 통제한 후에 산출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언어 및 추리능력에 있어서 .30, 공간 능력과 지각속도에 있어서는 .11, 그리고 시각적 기억력에 있어서는 거의 0에 가까웠다. Watkins와 Meredith(1981)의 연구는 부부간의 지능의 유사성이 결혼 초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능에 있어서 동질 결혼 현상이 배우자 선택 당시에 나타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Benbow, Zonderman과 Stanley(1983)는 미국 SAT 성적의 상위권 1%에 속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여덟 개의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였다. 부모들의 평균 IQ는 15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5.5세, 어머니가 42.5세였다. 영재 부모들의 연령 변인 통제 후의 인지 능력에 나타난 상관 계수의 중앙값은 .46이었다. Benbow 등(1983)의 연구는 부부들의 지능의 유사성이 평균 지능층에서보다 극상위 지능층에서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Mascie-Taylor와 Vandenberg(1989)는 영국의 Cambridge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193쌍의 부부들과 Oxford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150쌍의 부부에게 WAIS를 실시하였다. Cambridge 지역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언어성 지능에 있어서 .34, 동작성 지능에 있어서 .29, 전체 지능에 있어서는 .40이었으며, Oxford 지역의 부부는 언어성 지능에 있어서 .46, 동작성 지능에 있어서 .16, 전체 지능에 있어서 .37을 나타냈다.

Alarcon, Plomin, Fulker, Corley와 DeFries(1998)는 Colorado Adoption Project(CAP)에 참가한 418쌍의 부부들의 언어 능력, 공간능력, 지각속도, 시각적 기억력검사 점수를 검토하였다. 418쌍의 부부는 모두 12살짜리 자녀를 둔 중년 부부들이었다. 연령 변인을 통제한 후 계산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언어능력에서 .33, 공간능력에서 .14, 지각속도에서 .16, 시각적 기억력에서 .15였다.

인지능력에서의 부부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요약하면, 일반 지능에 있어서 부부간의 상관 관계는 대체로 .30에서 .4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것이 유일했는데, 미국, 유럽, 일본인들에서 측정된 상관 계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서 반복 검증해 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부간의 상관계수를 구체적 인지능력에 따라

살펴보면, 언어능력에 있어서 가장 높고 기억력에 있어서 가장 낮으며, 공간능력과 지각속도는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aves(1984)는 언어 능력이 지능의 일반 요인(g)에 가장 높게 부하되고 기억력이 가장 낮게 부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인지능력들에 있어서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차이나는 것은 부부들이 지능의 일반 요인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을 반영할 따름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언어능력에 나타나는 부부들의 높은 유사성이 단순히 부부들의 지능의 일반 요인에서의 유사성을 반영하는지, 혹은, 부부들이 특정 이유로 인하여 일반 지능보다는 언어 능력이 유사한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는지에 관한 답변을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어능력에서 일반 요인을 통계적으로 제외시킨 후에도 부부간의 유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배우자들이 일반 능력보다 언어능력에서 유사한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 수준

교육수준과 지능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능보다 교육 수준에서 동질결혼의 정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Watkins와 Meredith(1981)는 215쌍의 신혼부부들의 교육수준의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교육 수준은 학교에 다닌 해수로 측정되었는데, 부부간의 교육 수준의 상관계수는 .51로 나타났다. 이 상관계수는 같은 표본에서 측정된 부부간의 어떤 인지능력의 상관 계수보다도 높았다.

Robert, Garrison, Anderson과 Reed(1982)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출생신고서에 보고된 부모들의 교육 수준에 관한 상관연구를 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

학교 졸업에서 대학 졸업 이상까지 여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965년에 미네소타 지역에서 출생한 자녀의 부모 63,650쌍의 부부간에 교육수준의 상관 계수는 .68이었고, 1966년 출생한 자녀의 부모 59,838쌍의 부부간의 교육 수준의 상관계수는 .69였다.

Heath 등(1985)은 1915년부터 1960년 사이에 노르웨이에서 출생한 쌍둥이와 그 배우자들의 교육수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교육수준은 학교에 다닌 햇수를 네 개의 범주(0-7년, 8-9년, 10-12년, 12년 이상)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쌍둥이와 그 배우자 6,148쌍의 교육수준의 상관계수는 .64이었다. 노르웨이에 이어 Heath, Eaves, Nance와 Corey (1987)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출생한 쌍둥이와 그 배우자들의 교육수준의 상관관계도 연구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여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쌍둥이와 그 배우자들 1,700쌍에서 측정된 교육수준의 상관계수는 .62였다.

Lykken과 Tellegen(1993)의 쌍둥이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에 관한 연구도 부부간의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교육수준은 학교에 다닌 햇수로 측정되었는데, 1,185쌍에서 나타난 상관계수는 .56이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사회의 대표적 표본들을 이용한 대형 연구들로서, 모두 일관성있게 교육수준의 부부 상관계수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 사회의 부부간의 학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장상수(1999)는 1990년과 1995년 사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2,392쌍의 부부의 학력을 조사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대졸 이상까지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장상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졸과 초졸이하의

학력에 있어서 동질 결혼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각 학력 별로 남편과 아내의 동질 결혼의 경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초졸 학력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질 결혼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고, 대졸 학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동질 결혼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장상수의 연구는 상관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해외 연구들과 직접비교를 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장상수의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표본을 이용하여,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교육에서 동질 결혼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관한 동질결혼 연구가 대부분 기혼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자녀를 낳았으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연구가 있다. Plomin, DeFries와 Roberts (1977)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자녀를 입양시킨 646쌍의 미혼 부모들과 하와이에 거주하는 795쌍의 기혼 부모들의 교육수준의 유사성을 대조해 보았다. 미혼 부모의 교육수준의 상관 계수는 .23이었고 기혼 부모의 상관계수는 .46으로서 미혼 부모들의 교육수준의 유사성이 기혼 부모의 유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각 상관계수에서 연령 변인을 통제했더라도 결과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같이 미혼 부모와 기혼 부모에 대한 비교는 '결혼을 하기 위한' 배우자선택의 요건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표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서구사회에서나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에 있어서 동질 결혼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육수준에서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50 - .70 사이에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부모들은 기혼 부모들에 비해 교육수준의 유사성이 낮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 성격

동질 결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들이 성격이 거의 닮지 않은 것을 보여 주었다. Ahern, Johnson, Wilson, McClearn과 Vandenberg(1982)는 Hawaii Family Study of Cognition에 참가한 693쌍의 부부에게 형용사 체크리스트, Eysenck 성격검사(EPI), Comrey 성격척도, 16성격요인검사, 자극추구 척도 등을 실시하였다. 연령 변인을 통제했을 때, 동질 결혼의 상관계수는 대부분 정적인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수치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형용사 체크리스트의 24개 성격 척도에서 나타난 동질 결혼의 상관 계수는 -.08에서 +.14사이에 있었으며, 평균은 .03이었다. 여덟 개의 Comrey 성격척도에 나타난 동질 결혼의 상관계수는 .06에서 .33 사이에 있었으며, 평균 값은 .18이었다. 16성격요인 검사 중 지적 요인을 제외한 15개의 성격요인에 나타난 동질결혼의 상관계수는 -.14에서 .19사이에 있었으며, 평균은 .03이었다. EPI의 내외향성 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나타난 동질 결혼의 상관 계수는 각각 .12와 .22였다. 자극추구척도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18이었다. Ahern 등(1982)의 연구는 사용된 성격검사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게 부부간의 성격의 상관 계수가 낮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Eysenck와 Wakefield(1981)는 영국 전역에서 거주하는 566쌍의 부부들에게 EPI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부부들의 평균 결혼연수는 8.5년으로 Ahern 등(1982)의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보다 다소 연령이 낮았지만, EPI의 내외향성 척도에서 -.01,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13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어, Ahern 등(1982)의 연구와 함께 성격에서 부부간의

유사성이 낮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Buss(1984)는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거주하는 93쌍의 부부(남자 평균 연령은 28.7세, 여자 평균 연령은 27.5세)에게 Wiggins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WIAS)를 실시하였다. Buss는 성격검사에 있어서 측정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WIAS를 자기보고, 부부간의 성격 평가, 면담자 평가의 세 가지 방법으로 부부들에게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WIAS 개별 척도에서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보고방법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평균 상관계수는 .12이었고, 부부간의 평가방법에서 나타난 평균 부부간 상관 계수는 .15, 그리고 면담자 평가방법에서 나타난 평균 부부간의 상관 계수는 .14였다. Buss(1984)는 연령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03 내외라고 보고하고 있다. Buss(1984)의 연구는 성격 측정 방법에 상관없이 부부간의 성격의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Guttman과 Zohar(1987)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38쌍의 전문직(변호사, 의사, 심리학자, 건축가 등)에 종사하는 부부들에게 Comrey 성격척도를 실시하였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38.2세, 아내의 평균 연령은 34.0세였다. 일곱 개의 성격척도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평균 상관계수는 .18이었고, 연령 변인을 통제했을 때는 .14이었다. Guttman과 Zohar(1987)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부부들에게 있어서도 성격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Russell과 Wells(1991)는 94쌍의 부부에게 EPI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부부들은 19세부터 7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속해 있었고 평균 결혼 연수는 14년이었다. EPI의 내외향성 척도에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05였으며, 신경증적 경향성에서는 .18, 정신병적 경향성에서는 .28이었다. Lykken

과 Tellegen(1993)은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쌍둥이와 그들의 배우자 1,185쌍에게 성격, 태도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성격은 10 개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 Multiple Personality Questionnaire(MPQ)로 측정되었다. 쌍둥이들과 그 배우자들의 연령은 22세에서 68세 사이에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38세였다.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10 개의 MPQ 척도에서 나타난 쌍둥이 부부들의 평균 상관계수는 .08이었다.

이상과 같이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성격에 대한 동질 결혼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 성격검사지, 성격 측정방법, 부부의 연령층, 부부의 사회계층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결같이 성격에 있어서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정적이지만 매우 낮은 것(.20 이하)으로 보고하고 있다.

#### 사회적 태도

사회적 태도에 관한 동질 결혼연구는 비교적 적게 수행된 편이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태도에 있어서 부부간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Eysenck와 Wakefield(1981)의 연구에서 저자들은 정치적 견해에 관한 두 개의 척도를 부부들에게 실시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급진-보수 척도로서 좌익 및 사회주의 성향(급진)과 우익 및 파시즘 성향(보수)을 측정하였고, 두 번째 척도는 타협적-극단적척도로서 타협적인 태도와 극단적이며, 독단적인 태도를 측정하였다. 급진-보수 척도에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51이었으며, 타협적-극단적 척도에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56이었다.

Eaves, Eysenck와 Martin(1989)은 영국의 런던 지역에 거주하는 321쌍의 부부에게 Public Opinion Inventory(POI)를 실시하였다. POI는 종교에 대한 태도, 권위주의, 사회주의, 편견, 허용성의 다섯 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의 연령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허용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52와 .56 사이에 있었다. 허용성요인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35였다.

Feng과 Baker(1994)는 미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부부들을 17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종단 연구를 하였다. Feng과 Baker(1994)는 부부들에게 종교에 대한 태도, 정치적 보수주의, 성평등-불평등에 대한 태도척도를 실시하였다. 제 1차 년도에서 연령을 통제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종교에 관한 태도에서 .62, 정치적 태도에서 .54, 남녀 불평등에 관한 태도에서 .42를 나타냈다.

사회적 태도에 관한 동질연구는 아직 불충분한 편이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태도의 부부 상관계수가 대략 .50에서 .60사이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교육수준의 부부 상관계수와 거의 비슷할만큼 높다. 교육수준과 사회적 태도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Scarr & Weinberg, 1981)을 고려하면, 부부간의 사회적 태도의 유사성이 부부간의 교육수준의 유사성에 의해 중재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동질결혼 연구는 부부간의 교육수준과 사회적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그 관계를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 가치관

사회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가치관에 관한 동질 결혼연구들도 아직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가치관의 부부상관계수들이 사회적 태도의 부부상관계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rocidano와 Rogler(1989)는 미국 뉴욕시에 이민은 Puerto Rico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Puerto Rico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친족주의와 운명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하여 두 세대에 걸쳐서 연구하였다. 친족주의는 친척간의 깊은 결속과 유대관계를 존중하는 가치로서, 친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의무로 여기는 문화적 가치이다. 운명주의는 인간의 생애의 성패는 신, 운명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개인의 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형이상학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이다. 이민 1세대 부부 100쌍은 평균 연령이 55세였고 Puerto Rico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민 2세대 100쌍은 1세대 부부들의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로서 구성되었으며,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평균 연령은 29세였다. 이민 1세대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상관관계는 친족주의에서 .20이었으며 운명주의에서 .17이었다. 이민 2세대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상관관계도 비슷한 수치로서, 친족주의에서 .22, 운명주의에서 .30이었다. 이 상관계수들은 높은 수치들은 아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rocidano와 Rogler (1989)의 연구는 이민을 통한 사회문화적 장소 이동에도 불구하고, 동질 결혼을 통하여 고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Caspi 등(1992)은 미국의 켈리 종단연구(Kelly Longitudinal Study)에 참석한 부부들의 가치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켈리 종단연구에 참석할 당시 약혼한 상태이던 165쌍의 커플들이 다섯 개의 가치관 척도, 즉, 이론적, 경제적, 심미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관과 결혼에 대한 네 개의 가치 척도, 즉, 배우자에 대한 충실, 혼전 성관계, 동료애, 일상활동 척도에 응답하였다. 부부간의 상관 계수는 이론적 가치관과 경제적 가치관에서 .27, 심미적 가치관에서 .38, 정치적 가치관에서 .34, 종교적 가치관에서 .52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 척도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충실이 .21, 혼전 성관계는 .24, 동료

애는 .16, 일상 활동은 .22로서 평균하여 .21을 나타내었다. 종교적 가치관에서 부부간의 상관 관계가 유난히 높은 것은 아마도 부부들이 종교의 유무 및 종교의 종류에 있어서 매우 일치하는 경향(Eaves, Martin, & Heath, 1990)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상의 가치관에 관한 동질결혼 연구들을 요약하면 부부간의 가치관 상관계수가 .20 내지 .3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부들은 유사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나, 유사성의 정도는 종교적 가치관을 제외하고는 크게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가치관 상관 연구가 아직도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결론은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신체 특성

신체 특성에 관한 동질 결혼연구는 20세기 초반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주로 신장, 체중, 그리고 비만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체질량(Body Mass Index; BMI)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usanne & Lepage, 1988). 신체 특성에 관한 대부분의 동질연구들은 키와 체중을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자기보고방법을 취하였다. 자기 보고 방법으로 측정된 신체 자료들은 직접 측정한 자료만큼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lta, Prineas, Berman, & Hannan, 1982).

Spuhler(1982)는 1902년부터 1962년 사이에 발표된 신체특성에 관한 동질 결혼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대부분 0에서 .30 사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메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체중에 대한 부부간의 평균 상관계수는 .22이며, 신장의 평균 상관계수는 .20이었다. 이 결과



에 따라 Spuhler(1982)는 신장 및 체중과 같은 신체적 특성에서 부부의 유사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Allison 등(1996)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발표된 체중과 BMI의 부부간의 상관연구들을 검토하여 Spuhler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체중에 관한 25개의 독립된 연구표본들 중에서 두 개의 표본이 부부간의 상관계수들의 부적인 값(-.15와 -.01)을 나타냈고, 나머지는 모두 정적인 값(.01에서 .31 사이)을 나타냈다. 체질량은 여덟 개의 연구 표본들이 검토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적인 상관계수(-.02)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모두 정적인 값으로 0에서부터 .26사이에 있었다. Spuhler(1982)와 Allison 등(1996)의 메타분석들을 함께 고찰해보면, 부부간의 체중 및 체질량의 유사성이 1902년부터 1990년까지 거의 일 세기 동안 .30이하로 꾸준히 지속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부부들의 신체 특성의 유사성 연구로서 지선하(2000)의 연구를 유일하게 꼽을 수 있다. 지선하(2000)는 한국 전지역에 거주하는 435쌍의 부부들의 신장과 체질량의 상관 관계를 구하였는데, 연령 변인을 통제한 후의 신장의 상관계수는 .28이었고, 체질량의 상관계수는 .01이었다. 지선하(2000)의 연구는 신장과 체질량과 같은 신체특성에서 한국인의 동질 결혼 정도가 미국과 유럽인들의 동질 결혼 정도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Hα(1986)는 51쌍의 미혼 부모들과, 친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자녀를 입양한 109쌍의 기혼 입양부모들, 친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67쌍의 일반 기혼부모들 사이에 신장과 체중의 동질 결혼 정도를 비교하였다. 미혼 부모들의 신장의 상관계수는 .07(연령 변인을 통제한 후의 상관계수는 -.03)이었으며, 체중의 상관 계수는 .03(연령 변인을 통제한 후의 상관 계수는 -.19)이었다. 입양부모의 신장의

상관계수는 연령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나, 하지 않았을 때나 .14였고, 체중의 상관계수도 .14(연령을 통제한 후의 상관계수는 .12)였다. 일반 기혼부모들의 신장의 상관계수는 .13(연령 변인을 통제한 후는 .16), 체중의 상관계수는 연령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나, 하지 않았을 때나 .21이었다. 이 결과에서 Hα(1986)는 신체특성의 유사성 정도에 있어서는 미혼 부모나 기혼 부모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Hα(1986)의 연구 결과는 미혼부모와 기혼부모가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한 Plomin (1977)등의 연구결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흥미롭다.

Susanne과 Lepage(1988)는 1899년부터 1986년 사이에 세계 여러 국가 및 민족의 표본들로부터 측정한 부부간의 신장의 상관관계를 종합하여, 산업사회와 비산업사회간에 신장의 동질 결혼의 정도가 차이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산업사회와 비산업사회 모두에서 부부간의 신장의 상관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상관계수들이 대부분 정적인 반면에, 남미 여러 국가들, 저개발 국가 등과 같은 비산업사회에서는 상관계수들이 대체로 부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산업사회에서 수행된 연구의 부족으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신장과 같은 신체특성의 동질 결혼 정도가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이는 아마도 미의 기준과 결혼 문화가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부부들은 신장, 체중, 체질량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에서 서로 닮은 경향이 있으나, 그 유사성의 정도는 대체로 낮은 것( $r = .30$  이하)을 알 수 있다. 부부간의 신체특성의 유사성이 낮은 것은 지난 1 세기동안 산업사회에서나 비산업사회에서 꾸준히 발견되어온 현상이었으며, 미혼 부모들에서나 기혼 부모들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동질 결혼은 배우자를 선택할 당시에 일어나는가, 아니면 결혼 기간동안 부부가 닮게 된 결과인가?

앞에서 고찰한 경험연구들에서 나타나듯이, 동질 결혼의 정도로 표시되고 있는 부부의 유사성은 대부분 결혼 또는 동거를 통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후에 측정된 부부간의 상관계수이다. Price와 Vandenberg(1980)는 부부간의 유사성은 몇 가지 요인들에 기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개인적 기호에 의하여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여 결혼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서로 닮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배우자들이 결혼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환경과 경험을 공유하는 동안 서로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부부간의 유사성은 결혼기간 동안 부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셋째로, 닮지 않은 부부들이 별거 또는 이혼을 하여, 서로 닮은 부부들만 결혼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로, 배우자들이 닮은 것은 배우자들의 연령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연령이 비슷하여 배우자간의 세대차가 적고 부부들은 성숙 및 발달의 측면에서 비슷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높은 유사성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험연구들이 배우자들의 연령을 통제하여도 상관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이유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부부의 유사성이 처음부터 서로 닮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때문인가, 부부가 살면서 닮아간 결과인가, 아니면, 닮지 않은 부부들이 이혼 또는 별거하여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가설들은 몇몇 횡단 및 종단 연구들에 의해 검토되어 왔다.

Watkins와 Meredith(1981)는 결혼의 기간에 따라

부부간의 인지능력이 닮아가는가의 문제를 횡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자신들의 연구에 참여한 신혼부부들 (18세와 30세 사이)의 인지능력의 상관계수와 Zonderman, Vandenberg, Spuhler와 Fain(1977)의 연구에 참가한 123쌍의 중년 부부 (27세와 42세 사이)의 인지능력의 상관계수, Johnson 등(1976)의 연구에 참가한 555쌍의 장년 부부 (최소한 14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능력의 상관계수들을 비교하여 보고하였다. 이 세 연구는 똑같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였다. 세 연구를 횡단 비교한 결과, Watkins와 Meredith의 표집, Zonderman 등의 표집 및 Johnson의 표집에서 언어 및 추리 능력은 각각 .30, .41, .21, 공간능력은 각각 .11, .10, .16, 지각속도 및 정확성은 각각 .14, .05, .13, 시각적 기억력은 각각 .07, .35, 0 이었다. 어느 횡단 비교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일관성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Watkins와 Meredith(1981)는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간의 인지 능력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지능력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Price와 Vandenberg(1980)는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상호 영향으로 인하여 닮아가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rice와 Vandenberg(1980)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에서 첫 단계로서 결혼 연수가 들어가고, 둘째 단계로서 연구변인에 나타난 배우자의 점수,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결혼 연수와 배우자 점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들어갔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정적인 값을 나타낼 때는 결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부적인 값을 나타낼 때는 결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가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Price와 Vandenberg(1980)는 미국에 거주

하는 134쌍의 부부들의 신장, 체중, 성격에 위계적 회귀 분석모델을 적용시켰는데, 어느 변인에도 부부들간에 닮아가는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Masice-Taylor와 Vandenberg(1989)는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의 지능과 성격이 닮아가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영국의 Oxford 지역에 거주하는 150쌍의 부부와 Cambridge 지역에 거주하는 193쌍의 부부들의 WAIS와 EPI에 나타난 점수에 Price와 Vandenberg(1980)가 개발한 위계적 회귀모델을 적용시켰다. WAIS와 EPI의 어느 척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횡단연구들은 부부가 결혼기간동안 닮아간다고 보다는 처음부터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상호 영향으로 인하여 닮아가는가에 관한 문제는 횡단연구보다 종단연구가 좀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므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aspi 등(1992)은 미국의 켈리 종단 연구(Kelly Longitudinal Study)에 참가한 부부들의 가치관 자료들을 분석하여, 20년 동안 부부의 가치관에 있어서 유사성의 정도가 변화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첫 단계 연구에서 약 300쌍의 약혼한 상태의 배우자들이 켈리 종단연구에 참여하여 다섯 개의 가치관 척도(이론적, 경제적, 심미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관)와 결혼에 대한 네 개의 가치관 척도(배우자에 대한 충실, 혼전 성관계, 동료애, 일 생활)에 응답하였다. 처음 참석자들 중 결혼을 유지해 왔던 165쌍의 부부들이 20년 후에 같은 가치관 설문지에 다시 응답하였는데, 초기 응답에서 다섯 개의 가치관에 나타난 부부의 상관계수 평균치는 .36이었고, 20년 후의 응답에서 부부 상관계수의 평균치는 .39이었다. 결혼에 대한 네 개의 가치관 조사에 있어서도 초기 응답에 나타난 부부

상관 계수의 평균은 .21이었으며, 20년 후의 부부 상관 계수의 평균은 .23이었다. 결과에 따라, Caspi 등(1992)은 부부들이 결혼기간 동안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선택당시의 유사함을 유지할 따름이라고 결론지었다.

Caspi와 Herbener(1993)는 미국의 버클리 연구(Berkeley Guidance Study)와 오클랜드 연구(Oakland Growth Study)에 참가한 82쌍의 부부들의 성격 자료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부부들은 1970년에 캘리포니아 성격검사(CPI)에 응답하였고, 11년 후인 1981년 다시 같은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초기 응답에서 CPI의 척도들에 나타난 부부의 상관계수의 평균은 .19이었고, 11년 후에 나타난 부부의 상관계수의 평균은 .13이었다. 두 시점에 걸쳐 CPI의 각 개별 척도에서 측정된 부부간의 성격의 유사성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Feng과 Baker(1994)는 미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부부들의 성격과 태도에 관하여 17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종단연구를 하였다. 부부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Brandburn(1969)이 개발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척도들이 실시되었고, 사회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종교에 대한 태도, 정치적 보수주의, 성평등-불평등에 대한 태도 척도가 실시되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긍정적 정서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12, .16, .05였고 부정적 정서에서 나타난 상관계수는 .10, .13, .19이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종교적 태도에서 나타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53, .69, .69이었으며, 정치적 보수주의에서는 .52, .44, .36이었으며, 성평등-불평등에 관한 태도에서는 .36, .35, .38이었다. Feng과 Baker(1994)는 노년기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성격이나 사회적 태도들이 닮아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유사성을 대체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Feng과 Baker(1994)는 또한 유사성이 낮은 부부

들이 이혼하게 되는가를 검토해보기 위하여,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123쌍의 부부들과 종단연구 도중에 이혼한 25쌍의 부부들의 초기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두 그룹의 부부간의 상관계수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55세 이상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사성의 부족으로 인한 이혼들이 결혼의 초기에 일어났다면 포착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질 결혼에 관한 대부분의 횡단 및 종단 연구들이 부부간의 유사성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의 상호작용 및 공유하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닳아진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결론이 일치되고 있다. 유사성이 낮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가,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경험연구들이 필요하다.

### 사회적 동질 결혼과 특성적 동질 결혼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질 결혼이 배우자선택 당시에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본 절은 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과 이에 대한 검증연구들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동질 결혼을 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편이어서 왜 동질 결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동질 결혼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으로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social homogamy)과 특성적 동질 결혼이론(phenotypic homogamy)이 있다.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은 주로 사회학자와 사회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서

교육수준, 사회계층, 거주지역 등이 배우자 후보들의 지리적 및 사회적 근접성을 형성하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여 동질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Clark, 1952; Kephard, 1961). 즉, 배우자간의 유사성은 배우자들의 성장과정, 사회문화적 배경의 유사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특성적 동질 결혼 이론은 배우자 개인의 특성과 선호도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배우자들의 성장환경, 사회 문화적 배경, 지리적 근접성과 상관없이 배우자들이 관찰될 수 있는 특성에 근거하여 서로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선택하여 결혼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관 관계가 높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Heath & Eaves, 1985).

초기의 연구들은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과 특성적 동질 결혼이론을 상호 대립되는 이론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적 동질이론과 특성적 동질 이론을 동시에 수궁하여 각각의 영향들을 비교하고 측정해 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Watkins와 Meredith(1981)는 인지능력에 있어서 부부간의 상관계수 중에서 부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제적으로 통제시킴으로써, 인지능력에 있어서의 부부간의 상관관계가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Watkins와 Meredith(1981)는 215쌍의 신혼부부들의 언어추리능력, 공간능력, 지각 속도 및 정확성, 시각적 기억력 검사들을 실시하여, 이 검사들에 나타난 부부간의 상관계수들과 부부의 사회적 배경 요인들인 교육수준, 수입, 직업 변인들을 통제한 후의 부부간의 상관계수들을 비교하였다. 통제한 후, 언어 추리력에서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원래 .40이었던 것이 .30으로 줄어들었으나, 잔여 상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간능력과 시각적 기억력은 부부간의 상관계수들이 낮은 편(각각

$r = .16$ 과  $r = .02$ 이었는데, 부부간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상관계수의 값이 변하지 않았다. 지각 속도 및 정확성에 있어서 부부간의 상관계수도 다소 낮았는데( $r = .18$ ),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통제하였더니, 부부간의 상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8)으로 떨어졌다. Watkins와 Meredith(1981)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공간능력과 시각적 기억력은 부부가 서로 별로 닮지 않았고, 지각 속도 및 정확성은 부부간에 다소 유사하였는데, 그 유사성은 부부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어, 사회적 동질결혼 이론을 지지하였다. 부부간의 언어추리력은 매우 유사하였는데, 그 유사성의 매우 작은 일부만이 부부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사성으로 설명이 되어,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보다는 특성적 동질결혼 이론을 지지하였다. 즉, 언어추리력에 있어서 부부가 유사한 이유는 배우자들의 교육수준이 유사해 서라기 보다 배우자들이 언어능력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수준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Mascie-Taylor와 Vandenberg(1988)는 영국에 거주하는 193쌍의 부부들에게 WAIS를 실시하여, 배우자선택의 요소들을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로 나누어서 각 요소들이 배우자의 지능의 유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수동적 요소는 학교교육, 사회계층,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 요인으로 정의하여서 사회적 동질결혼 이론을 반영하였고, 능동적 요소는 배우자의 유사성 중에서 수동적인 요소를 제외시킨 모든 부분으로서 정의하여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수동적 요소들을 통제했을 때 부부간의 상관계수는 언어성 지능에 있어서 .34가 .20으로, 동작성 지능에 있어서 .29가 .18로, 전체 지능은 .40이 .21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잔여 상관계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사회적 동질

결혼 이론만으로는 지능에 대한 동질 결혼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다.

Heath와 Eaves(1985)는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특성적 동질 결혼이론과 사회적 동질 결혼 이론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혼합 동질 결혼모델(mixed homogamy model)”을 개발하였다. 혼합 동질 결혼모델은 만약 부부간의 유사성이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형제들의 성장 환경 및 사회적 배경이 유사하므로 형제들의 배우자들간의 상관관계(예; 배우자1-배우자2)가 형제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예; 형제1-배우자1 또는 형제2-배우자2)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특성적 동질 결혼이 지배적이라면, 형제들이 공유하는 성장 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형제들의 개별적 특성과 기호에 따라 동질 결혼이 성립될 것이므로 형제들의 배우자들간의 상관관계(예; 배우자1-배우자2)가 형제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예; 형제1-배우자1 또는 형제2-배우자2) 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Eaves 등(1989)의 연구에서 저자들은 혼합 동질 결혼모델을 부부들의 POI 사회적 태도검사 결과에 적용시켰다. Eaves 등(1989)은 POI의 종교에 대한 태도척도와 편견척도는 사회적 동질 결혼모델만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척도와 사회주의척도에서는 사회적 동질 결혼모델과 특성적 동질 결혼모델 모두가 중요하였다.

Nagoshi, Johnson과 Ahern(1987)은 혼합 동질 결혼 모델을 Hawaii Family Study of Cognition에 참가한 47쌍의 형제들과 그 배우자들의 인지능력, 교육수준, 직업성취 변인에 적용시켰다. 모델 적용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의 유사성에는 특성적 동질 결혼 현상과 사회적 동질 결혼 현상이 동시에 작용했으며, 직업성취에는 특성적 동질 결혼이 주로 작용하였다. 언어능력에는 사회적 동질 결혼, 지각속도에는 특성적 동질 결혼 현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Watkins와 Meredith(1981)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Nagoshi 등(1987)의 연구결과가 Watkins와 Meredith(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즉, Nagoshi 등(1987)의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기 어려운 점도 생각해볼 수 있고, 두 연구에서 이용된 통계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Nagoshi와 Johnson(1994)은 Hawaii Family Study of Cognition에 참가한 형제들 중에서 Eysenck 성격 검사, 급진-보수 주의 사회적 태도 검사에 응답한 40쌍의 형제들과 그 배우자들에게 혼합 동질 결혼모형을 적용시켰다. 성격척도 중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에 나타난 부부간의 유사성을 설명하는데는 사회적 동질 결혼요소와 특성적 동질 결혼요소 모두가 필요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성적 동질 결혼요소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부부의 급진-보수주의 사회적 태도의 유사성을 설명하는데도 사회적 동질 결혼요소와 특성적 동질 결혼요소들이 모두 작용하였지만, 특성적 동질 결혼요소가 사회적 동질 결혼요소보다 훨씬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다.

동질 결혼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동질 결혼에는 사회적 동질 결혼요인과 특성적 동질 결혼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으며, 변인에 따라 사회적 동질 결혼 요소가 우세하기도 하고 특성적 동질 결혼요소가 우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질 결혼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및 경험연구들은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숙한 점이 있다. 앞으로 동질 결혼의 이론자체는 물론, 이론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 연구 방법도 좀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은 인간의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 결혼에 관한 경험 논문들을 고찰하여 동질 결혼 현상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문제는 (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에 있어서 부부들끼리 얼마나 닮았는가, (2) 동질 결혼은 결혼할 당시 배우자들간의 유사성의 결과인가, 부부들이 결혼기간 동안 공유하는 환경과 경험으로 인하여 서로 닮게된 결과인가, (3) 인간은 왜 동질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이다.

본 논문은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들로서 인지 능력, 성격, 사회적 태도, 가치관, 신장, 체중, 체질량, 그리고 배우자의 사회적 배경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았다.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들에 관한 동질 결혼연구들은 동질 결혼의 정도가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나타냈다. 교육수준과 사회적 태도에서는 동질 결혼의 정도가 매우 높아서 부부간의 상관 계수가 대략 .50에서 .70 사이에 있었다. 한국사회에서도 교육수준에 관한 동질 결혼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수준의 중간 계층보다 양극단 계층(초졸 및 대졸)에서 동질 결혼의 정도가 더욱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부부간의 지능의 상관계수는 교육수준의 상관계수보다 낮아서, 대체로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이 결과는 부부간의 교육수준의 상관관계가 부부간의 지능의 상관관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사회적 배경 요인으로서 교육수준이 배우자 선택 및 결혼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부간의 지능의 상관계수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 능력에서 부부간의 유사성이 가장 높았고, 기억력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각속도와 공간능력에서 중간이

었다. 부부간의 상관관계가 인지능력의 여러 영역에서 왜 각각 다른지에 관해서 설명이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경험적으로 입증해보아야 할 과제들이다.

가치관에서 부부의 상관계수들은 대부분 .20에서 .30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가치관에 관한 동질결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신체 특성(신장, 체중, 체질량)과 성격의 동질결혼 현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신체 특성에 관한 부부의 상관계수들은 대부분 .30이하로서 부부가 신장, 비만의 정도 등에 있어서 별로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인 부부들도 신체특성의 유사성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에 관한 동질결혼 현상은 여러 가지 성격 검사지와 측정방법들을 이용하여 검토되었지만 한결같이 부부간의 상관계수가 낮거나 거의 0에 가깝다고 보고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ussell과 Wells(1991)는 성격의 차이가 클수록 부부가 느끼는 결혼 만족도와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결혼 만족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부부간의 성격 유사성의 '최적 수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부부가 성격에 있어서 너무 많이 닮아도 안되고, 너무 반대가 되어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혼의 사유로 '성격차'가 일반인 사이에 종종 언급되는 것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 성격의 동질 결혼 연구는 결혼 만족도와 관련시킨 영역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동질 결혼에 관한 횡단 및 종단 연구들은 부부간의 유사성이 결혼기간 동안 부부의 상호작용 및 공유하는 환경으로 인해 부부가 닮아진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에 일치하고 있다. 이 결론은 '부부가 모든 면에서 서로 닮

아간다'는 속설에 상반되는 발견으로서 한국사회에서도 수행되어야 하는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왜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의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및 검증 연구들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지배적인 이론으로는 배우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유사성과 성장 환경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동질 결혼이론과 배우자의 개별적 특성과 기호를 중시하는 특성 동질 결혼이론이 있다. 이 이론들에 대한 검증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부부의 교육수준의 유사성에는 특성 동질 결혼 현상과 사회적 동질 결혼 현상이 동시에 작용했으며, 성격 중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사회적 태도 중의 급진-보수주의 태도에는 특성 동질 결혼 요소가 더 우세하게 작용하였다. 언어능력과 지각속도는 연구들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상호 보완의 욕구로 인해 반대의 특성을 지닌 배우자들이 서로 매력을 느낀다는 이질 결혼이론이 대두된 적이 있지만(Winch, 1963),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많은 경험연구들이 이질 결혼보다는 동질 결혼이 인간의 결혼에 있어서 보편적인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동질 결혼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단일 특성에 있어서 부부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해왔기 때문에 부부간의 복잡한 상호보완의 양상을 잘 포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Glicksohn & Golan, 2001).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프로파일 분석방법 등을 이용하면 결혼양상에 관한 결론들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기간 동안 부부간의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기의 유사성이 증가하거나 감소되지 않고 대략 같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발견은 매우 흥미롭다. 결혼 초기의 부부들의 유사성이 결혼

기간동안 여러 시기와 상황에 걸쳐서 초기의 유사성을 지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내기 때문에 유사성이 지속되는지도 모른다(Buss, 1984). 혹은, 부부 각자의 성향이 성인기에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의 유사성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Caspi 등, 1992). 그러나, 유의할 사항으로는 부부간의 유사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지능, 성격, 사회적 태도, 가치관, 신장, 체중 등과 같이 대체로 안정적인 특성들에 제한되어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Price와 Vandenberg(1980), Holmila 등(1990)은 음주 및 식사 습관, 사회활동 등과 같이 비교적 변화하기 쉬운 행동 특성에 있어서 부부들이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결혼할 뿐만 아니라,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닮아져 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까지 동질 결혼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동질 결혼의 원인을 사회적 동질요인과 특성 동질요인으로 양분하여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는데 이러한 양분법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계층,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은 부모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개인에게 수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능력, 심리적 성향 및 기호에 따라,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개인적'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eath & Eaves, 1985). 만약 유사한 성향, 취미, 가치관, 태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리적, 사회적 이동을 통하여 같은 학교, 직장, 거주지역, 종교단체 등에 모여서 서로 적극적인 교류와 접촉을 갖게 된다면, 학교, 직장, 거주지역 등을 순수한 사회적 요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단순히 양분할 것이 아니라, 학교, 거주지역과 같은 요인들과 배우자의 특성 요인들이 '어떻게' 조합하여

동질 결혼에 이르게 되는가, 즉, 두 요인들이 조합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Meir와 Jamison(1990)은 학교, 거주지역 등과 같은 요소들이 배우자후보들에게 지리적, 사회적 경계선을 설정하고, 설정된 경계선 내에서 배우자후보들이 자신과 특성이 닮은 배우자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ykken과 Tellegen(1993)은 사회문화적 계층과 지리적 경계내에서 배우자후보들이 운명, 기회, 순간적인 낭만 등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무작위적(random)으로 결합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질결혼 연구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들은 동질 결혼의 정도와 결혼 안정도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동질성 결여가 이혼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한국사회에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율과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고려해본다면 동질결혼은 심리학자들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아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장상수 (1999).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 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회지*, 33, 417-448.
- 지선하 (2000).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유전 및 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국민건강, 영양조사 심층, 연계분석. 용역보고서 (pp. 357-378).
- Ahern, F. M., Johnson, R. C., Wilson, J. R., McClearn, S. G., & Vandenberg, S. G. (1982). Family resemblances in personality. *Behavior Genetics*, 12, 261-280.



- Alarcon, M., Plomin, R., Fulker, D. W., Corley, R., & DeFries, J. C. (1998). Multivariate path analysis of specific cognitive abilities data at 12 years of age in the Colorado Adoption Project. *Behavior Genetics, 28*, 255-278.
- Allison, D. B., Neale, M. C., Kezis, M. I., Alfonso, V. C., Heshka, S., & Heymsfield, S. B. (1996). Assortative mating for relative weight: Genetic implications. *Behavior Genetics, 26*, 103-111.
- Benbow, C. P., Zonderman, A. B., & Stanley, J. C. (1983). Assortative marriage and the familiarity of cognitive abilities in families of extremely gifted students. *Intelligence, 7*, 153-161.
- Bouchard, T. J., & McGue, M. (1981). Familial studies of intelligence: A review. *Science, 212*, 1055-1059.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uss, D. M. (1984). Toward a psychology of person-environment (PE) correlation: The role of spous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361-377.
- Caspi, A., & Herbener, E. S. (1990). Continuity and change: Assortative marriage and the consistency of personality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50-258.
- Caspi, A., & Herbener, E. S. (1993). Marital assortment and phenotypic convergence: Longitudinal evidence. *Social Biology, 40*, 48-60.
- Caspi, A., Herbener, E. S. & Ozer, D. J. (1992). Shared experiences and the similarity of personal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81-291.
- Clarke, A. C. (1952). An examination of the operation of residential propinquity as a factor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 17-22.
- Eaves, L. J. (1984). A note on the generalized effects of assortative mating. *Behavior Genetics, 14*, 371-376.
- Eaves, L. J., Eysenck, H. J., & Martin, N. G. (1989). *Genes, culture and personality: An empirical approach*. London: Academic Press.
- Eaves, L. J., Martin, N. G., & Heath, A. C. (1990). Religious affiliation in twins and their parents: Testing a model of cultural inheritance. *Behavior Genetics, 20*, 1-22.
- Eysenck, H. J. & Wakefield, J. A. (1981). Psychological factor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Advanced Behavioral Research Therapy, 3*, 151-192.
- Feng, D., & Baker, L. (1994). Spouse similarity in attitud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havior Genetics, 24*, 357-364.
- Glicksohn, J., & Golan, H. (2001).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assortative ma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199-1209.
- Guttman, R., & Zohar, A. (1987). Spouse similarities in personality items: Changes over years of marriage and implications for mate selection. *Behavior Genetics, 17*, 179-189.
- Hartle, D. L., & Clark, A. G. (1989). *Principles of population genetics*. Sunderland: Sinauer Associates.
- Heath, A. C., & Eaves, L. J. (1985). Resolving the effects of phenotype and social background on mate selection. *Behavioral Genetics, 15*, 15-30.
- Heath, A. C., Berg, K., Eaves, L. J., Solaas, M. H., Sundet, J., Nance, W. E., Corey, L. A., & Magnus, P. (1985). No decline in assortative mating for educational level. *Behavior Genetics, 15*, 349-369.

- Heath, A. C., Eaves, L. J., Nance, W. E., & Corey, L. A. (1987). Social inequality and assortative mating: Cause or consequence? *Behavioral Genetics*, 17, 9-17.
- Ho, H. Z. (1986). Assortative mating in unwed birth parents, adoptive, and nonadoptive parents. *Social Biology*, 33, 77-86.
- Holmila, M., Mustonen, H., & Rannik, E. (1990). Alcohol use and its control in Finnish and Soviet marriage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s*, 85, 509-520.
- Jensen, A. R. (1978). Genetic and behavioral effects of nonrandom mating. In *Human Variation: Biopsychology of age, race, and sex*.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son, R. C., DeFries, J. C., Wilson, J. R., McClearn, G. E., Vandenberg, S. G., Ashton, G. C., Mi, M. P., & Rashad, M. N. (1976). Assortative marriage for specific cognitive abilities in two ethnic groups. *Human Biology*, 48, 343-352.
- Kephard, W. M. (1961). *The family, society, and the individual*. Boston: Houghton Mifflin.
- Lykken, D. T., & Tellegen, A. (1993). Is human mating adventitious or the result of lawful choice? A twin study of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56-68.
- Mascie-Taylor, C. G. N. (1987). Assortative mating in a contemporary British population. *Annals of Human Biology*, 14, 59-68.
- Mascie-Taylor, C. G. N., & Vandenberg, S. G. (1989). Spouse similarity for IQ and personality and convergence. *Behavior Genetics*, 19, 223-227.
- Meier, R. J., & Jamison, P. L. (1990). Assortative mating in monozygotic twins. *Social Biology*, 37, 128-135.
- Nagoshi, C. T., Johnson, R. C., & Ahern, F. M. (1987). Phenotypic assortative mating vs. social homogamy among Japanese and Chinese parents in the Hawaii Family Study of Cognition. *Behavioral Genetics*, 17, 477-485.
- Nagoshi, C. T., & Johnson, R. C. (1994). Phenotypic assortment versus social homogamy for personality, education, attitudes, and language u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55-761.
- Newcombe, T. M., Koenig, K. E., Flacks, R., & Warick, D. P. (1967). *Persistence and change: Bennington College and its students after twenty-five years*. Wiley: New York.
- Palta, M., Prineas, R. J., Berman, R., & Hannan, P. (1982). Comparison of self-reported and measured height and weigh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5, 223-230.
- Plomin, R., DeFries, J. C., & Roberts, M. K. (1977). Assortative mating by unwed biological parents of adopted children. *Science*, 196, 449-450.
- Price, R. A., & Vandenberg, S. (1980). Spouse similarity in American and Swedish couples. *Behavior Genetics*, 10, 59-71.
- Procidano, M. E., & Rogler, L. H. (1989). Homogamous assortative mating among Puerto Rican Families: Intergenerational Processes and the migration experience. *Behavior Genetics*, 19, 343-354.
- Robert, J., Garrison, V., Anderson, E., & Reed, S. C. (1982). Assortative marriage. *Social Biology*, 29, 36-52.
- Russell, R. H., & Wells, P. A. (1991). Personality similarity and quality of marri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407-412.
- Susanne, C., & Lepage, Y. (1988). Assortative mating

- for anthropometric characters. In C. G. N. Mascie-Taylor & A. J. Boyce (Eds.), *Human mating patterns* (pp. 83-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Scarr, S., & Weinberg, R. A. (1981). The transmission of Authoritarianism in families: Genetic resemblance in social-political attitudes? In S. Scarr (Ed.), *Race, social clas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Q.* (pp. 399-427). Hillsdale: Lawrence Erlbaum.
- Spuhler, J. N. (1982). Assortative mating with respect to physical characteristics. *Social Biology*, 29, 53-66.
- Thiessen, D., & Gregg, B. (1980). Human assortative mating and genetic equilibriu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thology and sociobiology*, 1, 111-140.
- Vandenberg, S. G. (1972). Assortative mating, or who marries whom? *Behavioral Genetics*, 2, 127-157.
- Watkins, M. P., & Meredith, W. (1981). Spouse similarity in newlyweds with respect to specific cognitive abilities,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 *Behavior Genetics*, 11, 1-21.
- Winch, R. F. (1963). *The modern famil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Zonderman, A. B., Vandenberg, S. G., Spuhler, K. P., & Fain, P. R. (1977). Assortative marriage for cognitive abilities. *Behavior Genetics*, 7, 261-271.

## Assortative Mating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its

Yoon-Mi Hu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Married couples tend to resemble each other in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its. The tendency of getting married with similar others is called assortative mating or homogamy. The present article deals with three issues of human assortative mating i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First, what are the estimates of assortative mating coefficients in cognitive abilities, education, personality traits, social attitudes, values, height, weight, and Body Mass Index? Secondly, is the observed similarity between spouses due to initial similarity, or to convergence during marriage as a result of shared environments and experiences? Finally, why do couples tend to assort? Studies of assortative mating have revealed considerable variability in spouse correlations across traits. Education and social attitudes showed strong assortative mating coefficients ranging from .50 to .70. For intelligence, assortative mating coefficients were generally between .30 and .40; and for values, they were between .20 and .30. Assortative mating coefficients for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traits were mostly less than .30 or close to zero.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of assortative mating suggest that observed spouse similarities were due to initial similarities rather than a consequence of the convergence during marriage. At present there are two major theories of assortative mating: phenotypic homogamy vs. social homogamy. The former asserts that spouse correlations are the result of mates selecting each other on the basis of similarities in observable characteristics (phenotypes), whereas the latter asserts that spouse correlations are the result of mates having been reared and met within the same social environment. Empirical studies that support phenotypic homogamy and social homogamy have been discussed.

*Keywords* : assortative mating, homogamy, spouse, similarity, phenotypes,

1 차원고접수 : 2001. 9. 6.  
수정원고접수 : 2001. 11. 26.  
최종게재결정 : 2001. 12. 7.